

도심권

• 12월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-1.6%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-1.6% = 소매업의 기여도 -1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0.0%p
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-2.6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+0.1% 증가

- 12월 도심권 소매업 하위업종의 소비경기지수는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종합소매, 음식료품·담배업, 무점포 소매를 제외한 5개 업종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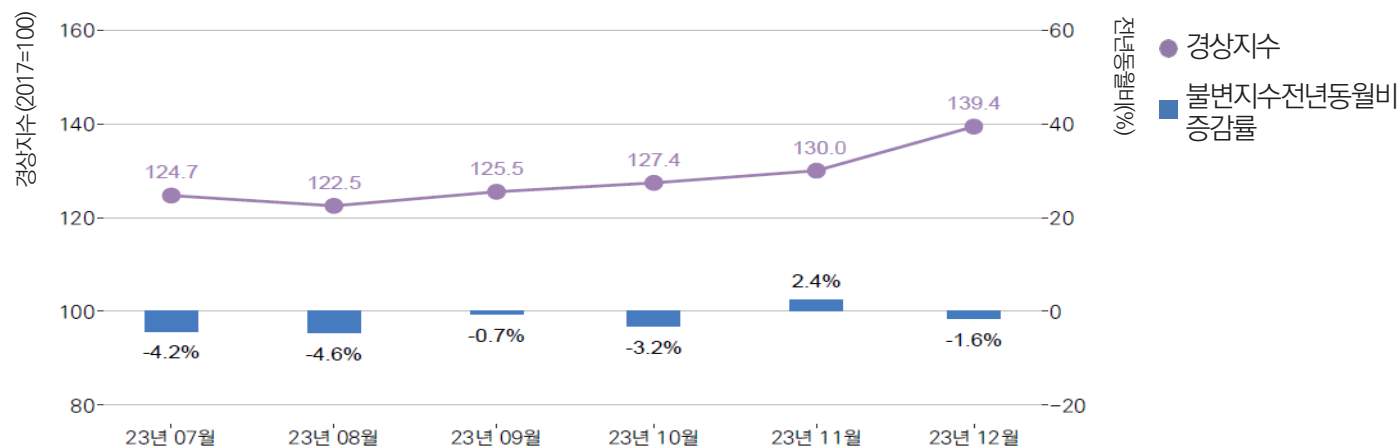
· 하위 업종들 중, 기타가정용품(44.3%), 문화오락여가(13.0%), 연료업(12.5%), 의복·섬유·신발(2.9%), 기타상품(0.6%) 순으로 소비증가

· 반면, 가전제품·정보통신(-48.3%), 종합소매(-3.2%), 음식료품·담배업(-2.4%), 무점포 소매(-1.1%) 순으로 소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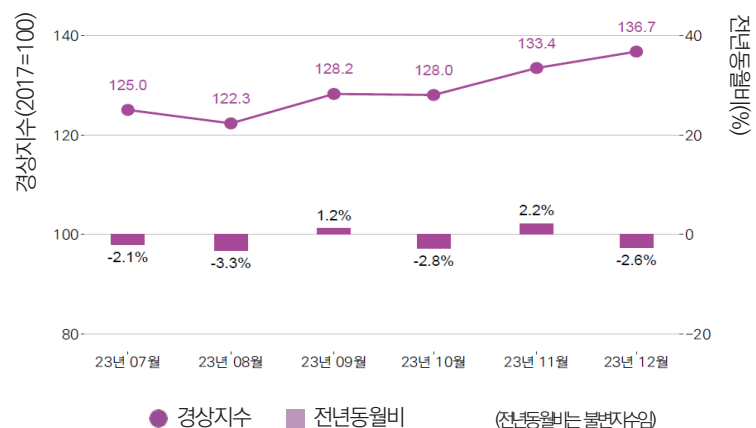
- 12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(3.2%), 숙박업(0.1%)이 증가하였고, 음식점업(-0.7%)은 감소

· 전월대비 음식점업(-0.7% ⇒ -0.7%)은 비슷한 수준, 주점·커피전문점업(6.7% ⇒ 3.2%), 숙박업(8.6% ⇒ 0.1%)은 증가폭 축소

|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